선민다움의 유전자 분석

(이사야 6:1~3)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다움의 유전자 분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다움의 유전자 분석'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의 내용을 통해 선민다움의 유전자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영적인 DNA를 구분해보는 시도를 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의 핵심적 내용은 지금 현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중심된 의도입니다. 예언은 이러한 거리가 유지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앞서 예루살렘 성전이 선민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떠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성전에 와서 왕성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1절에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합니다. '웃시야 왕'은 남 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솔로몬 전성시대에 버금가는 국력을 회복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화 군사 면에 있어서도 만사가 형통한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궁정 선지자였는데, 주변 인물들이 향락을 추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화 있을진저'라고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책망한 내용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현재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반복해서 살펴봄으로써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시대상은 웃시야 왕의 통치로 인해 백성들이 함포고복하

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있음을 통찰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선민을 멸절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지적합니다. 한편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이사야와는 반대되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잘되고 있다고 하면서 선을 악이라 하고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재미 취미 향락 등에 몰두하고, 여자들의 관심도 몸을 치장하는 것에 가있습니다. 명품백 명품악세사리 명품향수 명품옷 등을 추구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 '화 있을진저'라고 이들을 책망하면서 환상을 통해 선민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본 환상에 대해 살펴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2절에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랍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랍의 존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스랍이 여섯 날개가 있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스랍(שָׂרָף)은 라틴어로는 세라핌(seraphim)으로써 세라프(seraph)의 복수 형태입니다.
3~4절의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도다 하더라'라는 구절을 통해 한 둘이 아닌 수많은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랍들의 외형적인 묘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1절을 다시 살펴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일찍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말씀에서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선민 중의 선민입니다. 이 선민의 특징은 바로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을 관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에 비유한다면, 선민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이 머무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민들 중에서 선택된 남 왕국에서도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참 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건강이고 자녀의 형통이고 나라가 잘됨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민다움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랍'이라는 존재 자체가 많은 숙제를 안겨줍니다.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은데 어떤 이는 천사라고 하고, 어떤 이는 천사와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 무엇이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랍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일 가까이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천사든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와는 반대되는 상태를 뜻하고자, 상징적 존재로 스랍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랍이 설령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이 환상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민들의 마음과 대척점에 서는 존재로써 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스랍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있는 선민의 마음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한 마음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랍(שׂרף, 사라프)은 동사로 사용되면 '불을 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기분 나쁜 뱀일까요? 땅에서 구불구불 기어 다니는 뱀의 모습과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을 비슷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불길'이라는 뜻의 사라프를 라틴어에서는 복수 형태로 세라핌(seraphim)으로 부른다고 하

였습니다. 이 불길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열정은 특정한 대상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열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뜨겁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차갑고 관심이 없습니다. 열정의 화신들입니다.
다시 말해 참 선민의 모습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하나님 외에 달리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붙은 것만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열이 다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월드컵에서 멕시코 응원단이 3만 명이나 러시아로 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하나님께 쏟아져야만 합니다. 한창 뜨겁게 열애중인 연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른 누구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선민의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두 번째 유전자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스랍들의 특징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상황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뵙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함을 통해 하나님을 뵈올 때에 나타나는 마음의 감동의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면대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사는 농부나 어부가 왕의 초청을 받아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과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차마 왕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자신의 처지와 온 나라를 말 한 마디로 다스려가는 왕의 처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청임을 자각하기에 얼굴을 못 드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의 위치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사람을 만날 때에 나타납니다. 이미 최대로 높으신 하나님을 뵈었기에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을 만날지

라도 그 앞에서 작다고 느끼지 않으며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 앞에서 자신을 잘났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못남의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초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못났다고 욕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나는 그를 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장 못난 사람보다 더 못났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민이 가진 두 번째 유전자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나는 작은 사람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은총이 나를 감싸고 있고 바치고 있고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에 휩싸인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깰 수 있는 어떠한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더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면 이 평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어떤 잘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할 수 없으며 어떤 못난 사람 앞에서도 잘난 척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발에 대한 묘사는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와 만나실 때에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력서(履歷書)'라는 말도 '발로 밟고 걸어온 인생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랍들이 여섯 개의 날개 중에서 '두 개의 날개로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원대로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즉 절대로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신앙에 적용해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에는 '나 자신의, 나 자신에 의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력서에는 온통 내 발로 걸어온 역사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가린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자면 기껏 50년 60년 살고도 이것 밖에 안 되느냐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총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발로 밟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력을 만들어 가는 이유도 결국은 마음 채움 때문입니다. 마음이 채워질 만한 곳을 향해서 가고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움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갖게 되었다면 마음 채움을 위해서 더 이상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느껴지는 순간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채워졌던 것 같은 마음도 금세 다시 비게 되고 또 다시 마음을 채우려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음 채움을 위해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여정이 '나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이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선민이 가진 유전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선민이 갖는 유전자의 특징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으로써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고 만족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하다고 여기기에 돈이 없으면 우울해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기쁜데 자녀가 잘 안 되니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스랍의 모습에 비유되었습니다.
먼저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면대면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특징이 인관관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아무리 못난 사람 앞에서도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 보다 큰 사람은 없으며, 또한 나보다 작은 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휩싸여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냉담해진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은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마음이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나머지 선민다움의 유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함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땅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랍들처럼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 선민들의 유전자가 삶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